

이 시대 고아, 과부, 거류민은? : 성경과 센(Sen)의 관점을 중심으로*

**Who are the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of Our Time? :
A Focus on the Perspectives of the Bible and Amartya Sen**

조규봉 (Kyu Bong Cho)**

ABSTRACT

With economic polarization gaining prominence in Korean society, there is increasing societal interest in the plight of the impoverished.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meanings of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as representative vulnerable groups in ancient Israel to derive the criteria for poverty as outlined in the Bible. The findings reveal that poverty in the Bible is not solely defined by low income levels but also by a lack of the right to land ownership (heritage of family), which leads to a heightened systematic risk of poverty and significant obstacles to escaping impoverishment. Furthermore, the study compares the biblical criteria for poverty with Sen's approach, which redefines poverty through essential functionings and capabilities. This comparison uncovers substantial similarities between the notion of poverty in the Bible and Sen's concept of sustained capability deprivation. Building on this understanding, the study identifies the elderly as a primary impoverished group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However, it is premature to conclude that the elderly are caught in a vicious cycle of impoverishment due to ongoing capability deprivation.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timely social attention to the elderly and recommends that government support focus on maintaining their health and enabling economic independence in an increasingly digitalized environment, particularly through targeted digital education.

Key words: poverty, functionings, capabilities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29일 최종수정, 12월 2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영경제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kbcho1@handong.edu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소득은 6,762만원,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원이며, 순자산은 53,540만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순자산은 4.5% 감소하고 평균 소득은 4.5% 증가하였음에도 분배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수인 소득 5분위 배율¹을 보면 시장소득 기준(2022년)으로는 11에 근접하고 있으며 처분가능소득 기준(2022년)으로는 5.76으로 6에 근접한 값을 나타낸다. 게다가 근래 물가 상승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위별로 소비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체감 물가상승률을 구해 보면 근래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식료품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저소득 가계의 체감 물가상승률이 고소득 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박성욱·장민, 2021).

이러한 경제적 현실을 두고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과 주거급여의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빈곤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빈곤 문제가 성별, 연령대별로 어떠한 특색을 지니는지, 지역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연구는 대부분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보편적인 빈곤의 기준이 소득의 높고 낮음인 셈이다. 소득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소득 수준을 잣대로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티아 센(Amartya Sen)과 같이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층을 설정하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자들도 있다. 센은 빈곤을 단순히 소득이 낮은 상황으로 보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역량(capabilities)이 지속적으로 상실된 상황으로 인식한다. 이 같은 빈곤에 대한 인식 전환은 빈곤층을 어떻게 설정할지부터 정부의 지원이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빈곤은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구약성경에서는 토라에서부터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빈곤층에 대한 공동체적 지원이 주된 관심사로 등장한다. 신명기 15장 4절에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기록되

1) 소득 5분위 배율이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어 있다. 해당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보여주는 면제년(안식년) 규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근동지방의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풍습을 좇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명령을 따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빈곤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만큼 빈곤 문제 해결은 당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중대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성경의 인식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지목하는 대표적 빈곤층인 고아, 과부, 그리고 거류민(나그네)이 당대에 가지는 의미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빈곤의 개념을 이끌어 내었다. 그 결과 성경에서 제시하는 빈곤의 기준이 낮은 소득 수준을 포함하여 표면적인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토지(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의 유무, 즉 토지의 소유권을 갖지 못해 빈곤에 처하기도 쉽고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성경적 빈곤관이 빈곤 개념을 새로이 확장한 센의 접근방식과는 유사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센이 제시한 핵심적인 기능들(functionings)과 역량을 중심으로 빈곤을 정의해 보면 성경을 통해 추론한 빈곤 개념이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이 설정한 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이 누구인지 분석해 본 결과 노인 계층이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노인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 방향이 그들의 건강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디지털화된 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의 정부 발표나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와 일관됨을 알 수 있다(김태환, 2023 ; 신정하·전주성, 2024 ; 이승희, 2023).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빈곤 관련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빈곤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와 함께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에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빈곤 개념 자체에 대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찾아 보고, 현대 경제학계에 새로운 빈곤 관점을 제시한 센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 간에 유사성을 밝혀 보려는 시도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더욱이 새로운 빈곤 기준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을 찾아 그들에 대한 지원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지 찾아보려는 시도 또한 의미있는 연구의 시발점이라 생각된다.

본 고는 서론 이후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구약성경에서 예시한 대표적 빈곤층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빈곤의 기준을 추론해 볼 것이다. 이어서 센이 제시한 새로운 빈곤 기준을 설명하고 센의 기준과 구약성경 기준과의 유사성을 짚어볼 것이다. 뒤이어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을 찾아 보고 해당 계층이 성경과 센이 제시한 빈곤 기준에 부합하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밝힌 후 본 논문을 결론짓고자 한다.

II. 구약성경에서 빈곤층과 빈곤의 기준

성경, 특히 구약성경에서 사회 취약계층으로 반복해서 언급하는 대상이 고아, 과부, 그리고 거류민(나그네)이다. 모세오경(토라)를 비롯한 구약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년에 발생한 생산물을 이들이 자유로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추수 때 가난한 자들의 몫을 남겨두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공동체가 고아, 과부, 거류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 빈곤층이었기 때문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대에 고아, 과부, 그리고 거류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들이 공유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제시하는 빈곤의 기준을 찾기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1. 고아(야툼)

구약성경에서 ‘야툼’으로 기록된 단어는 통상 영어로 ‘orphan’, 우리말로는 ‘고아’로 번역한다. 우리 사회에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야툼’이라는 히브리어 또한 부모 없는 아이로 해석하기 쉽다. 하지만 구약성경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야토밈(야툼의 복수)’이 된다. 따라서 고대 근동지방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야툼’은 부모가 없는 아이라기 보다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이샤야, 2009). 아울러 ‘야툼’은 장성하여 과부인 어머니를 부양할 만한 나이가 아니라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해야 하는 미성년자로 추정된다(강은희, 2015). 결과적으로 구약성경에서 고아로 번역된 ‘야툼’이라는 단어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통칭하기 보다는 아버지를 여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성인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아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2. 과부(알마나)

그렇다면 구약성경에서 과부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알마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알마나’는 과부의 의미인 남편과 사별한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구약성경에 ‘알마나’ 외에도 과부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샤 알마나’, ‘에셋 하멧’이라는 함께 사용된다는 점이다. 강은희(2015)에 따르면 학자들은 대체로 이 세 용어의 차이에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일부 학자는 성경에서 사용된 맥락을 볼 때 특별히 ‘알마나’는 남편의 사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삶의 고난을 내포하는 용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슈타인버그는 과부를 의미하는 세 히브리어에 대해 구

약성경의 용례를 근거로 의미상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강은희, 2015). ‘이샤 알마나’는 상속 재산과 아들을 가진 과부를 지칭하고(왕상 7:14, 11:26, 17:9~20; 삼하 14:7), ‘에셋 하멧’은 룯과 다 말(창 38)의 사례에서 보듯 아들 없이 남편과 사별했으나 남편 일가와의 재혼을 통해 아들을 낳고 사별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를 가리킨다. 반면, ‘알마나’는 남편과 사별 후 경제적 부양을 담당할 주체가 전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약성경에 다른 용례를 추가로 분석해 보면 ‘알마나’가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다른 용어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는 힘들다(강은희, 2015). 오히려 경제적 상황 자체보다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남은 가족들의 무력함과 타인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운 위험성을 감안하여 남편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여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3. 거류민(게르)

마지막으로 거류민 혹은 나그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게르’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자. 디터 켈러만에 따르면, ‘게르’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속 자산 등 가계로부터의 경제적 보호막이나 특권이 없는 이들이다(강은희, 2015). 즉 ‘게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에 따른 구분 기준이라기보다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주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이주민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스피나와 고웬 같은 일부 학자들은 ‘게르’를 ‘이민자’로 번역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에서는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강은희(2015)는 현대 세계에서 이민이라는 제도로 인해 연상되는 법적, 제도적 의미 때문에 ‘게르’를 ‘이민자’로 번역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게르’가 가지는 의미를 왜곡할 수 있어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외국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노크리’와 ‘게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노크리’는 거주 지역 공동체 내에서 외부인으로 인식되는 반면, ‘게르’는 공동체 영역 내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 다른 지파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게르’에 포함될 수 있다. 정중호(2004)에 의하면 고대 근동지역에서 기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게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게르’의 경제적 지위는 토지 등 자신의 경제적 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일용 노동자(신 24:14)나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길는 사람(신 29:10), 또는 석수나 짐꾼(대하 2:16) 등 공동체 내에서 단순한 노역을 담당하는, 가난한 노동자 계층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강은희, 2015).

4. 사회적 지원 대상으로 빈곤의 기준

앞서 살펴보았던 ‘야툼’, ‘알마나’, 그리고 ‘게르’, 이들 세 부류의 공통점은 당시 사회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경제적 취약층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경제적 취약층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속지(기업)의 부계 계승이 원칙이었던 당대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농경사회에서 토지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야툼’, ‘알마나’, ‘게르’는 빈곤에 처하기도 쉽고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구약성경에서 공동체의 대표적 배려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 세 부류는 저소득층이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그들이 지닌 사회 구조적 취약성 또한 성경에서 빈곤층을 가르는 기준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경제적 지원은 일차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시 생산의 토대가 되었던 토지로부터의 혜택을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었던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안식년에 발생한 생산물을 이들이 자유로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지원책은 안식년이 도래하여 휴경 중인 농지에서 자생적으로 산출된 곡물이 그 농지의 소유주만의 몫이 아니라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하는 고아, 과부, 거류민 등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출 23:11 ; 레 25:3~7). 추수할 때 밭 귀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는 줍지 말며, 감람나무를 떼 후에 가지에 남은 것은 수확하지 말라는 명령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센(Sen)의 빈곤 기준과의 비교

구약성경에서 빈곤층을 가르는 기준이 소득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취약성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살펴보았다. 현대 경제학에서도 빈곤층을 설정하고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소득이겠지만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자들이 있다(Alkire, 2002 ; Stiglitz, 2010 ; Banerjee & Duflo, 2011 ; Deaton, 2013). 그 대표적인 학자가 앞서 언급한 센이다. 센은 빈곤 개념을 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재정의하였으며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 분야의 여러 학자들뿐 아니라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구약성경에서 제시한 기준의 연장선에서 센이 기존의 빈곤층 설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인 부분은 무엇이며, 센이 빈곤층을 설정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센이 제시한 기준과 구약성경에서 대표적 빈곤층으로 제시한 고아, 과부, 거류민의 공통적 특성에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1. 센의 빈곤에 대한 기준

센은 빈곤을 낮은 소득 수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빈곤 수준을 적정 소득 이하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다(Sen, 1976). 아울러 현재 경제학 이론은 소득, 효용에 기반해서 개인의 행동을 분석하지만, 실제 경제적 주체의 선택을 보면 금전적인 소득이나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자유와 인권 등 기본적인 덕목 또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제도적으로도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 빈곤 여부에 기본적인 덕목이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Visard,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소득은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며 소득이 낮다는 것은 역량의 상실(capability deprivation)로 인한 결과에 불과하다. 결국 센에 따르면 빈곤은 단순히 낮은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역량의 상실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센이 제시한 빈곤 개념과 기존의 소득 중심 빈곤 개념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기존 빈곤 개념과 센의 빈곤 개념

항목	기존 빈곤 개념 (소득 중심)	센의 빈곤 개념 (역량 접근법)
정의	소득이나 물질적 부의 부족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
목적	물질적 자원의 확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
해결 방안	소득 증대, 재분배 정책	다차원적 접근(교육, 보건, 사회적 기회 제공)

이제 센이 새롭게 제시한 빈곤의 기준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센은 빈곤을 정의할 때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렇다면 역량은 무엇인가? 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센은 ‘기능(function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여기서 기능은 삶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전반적인 삶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기능의 벡터(vector)로 설명 가능하다. 개인의 역량을 하나의 집합으로 본다면 실현 가능한 기능 벡터들의 집합(the set of feasible vectors)이 곧 역량의 집합(capability set)이 되며, 역량의 집합은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조규봉, 2020). 결국 센의 역량 개념에서는 기능 벡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센이 제시한 주요 기능으로는 건강한 상태(being healthy), 교육 수혜(being educated), 정치 참여(being able to participate in the life of the community) 등이 있다. 따라서 센이 정의한 빈곤, 즉 기본적인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은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필수적인 주요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형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센은 앞서 밝힌 것처럼 기초적인 자유와 인권 등 기본적인 덕목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센의 빈곤 관점을 자유, 인권 등 기본적인 덕목과 연관지어 보면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또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 또한 빈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센은 특히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자유는 단순히 기능(개인의 특정한 삶의 상태)의 한 형태가 아니라 역량 자체에 가깝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한 기능의 집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개인의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치적 자유나 교육을 적절히 누릴 수 없다면, 그들은 본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을 상실한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다. 센은 또한 빈곤과 인권을 연관 지으며, 기초적인 의료, 교육 및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복지(well-being)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면 그들의 역량 수준이 낮아져서 당장에 소득 기반 지표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빈곤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센은 기초적인 의료, 교육 및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이 또한 빈곤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센의 접근법은 빈곤을 본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자유의 결핍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센에게 있어 빈곤 문제의 해결은 전통적인 소득 지표가 간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부족을 포함하여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센의 기준으로 개발된 빈곤 지수 예시

센의 빈곤 기준은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제기구의 빈곤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비록 제한적인 기능들을 반영하여 역량 지표를 추정하기는 하지만 United Nations(UN)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기존에 활용하던 빈곤지수 외에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UN 내 특별 기구인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에서는 Human Development Index(HDI)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다. HDI는 기대 수명, 교육, 소득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지표인데 센이 강조한 주요 기능을 토대로 사회 전반의 역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UNDP는 옥스퍼드대학 내에 있는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OPHI)와 공동으

로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MPI) 지표도 개발하였다. MPI는 건강(영양상태, 아동사망률 등을 포함), 교육(교육기간, 학교출석률 등을 포함),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요리 연료, 위생, 식수, 전기, 주택, 기본 자산 등의 수준을 포함)의 3가지 측면을 모두 감안하여 산출한 지표이다. 새로이 개발된 지표들은 기존에 특정 국가의 빈곤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왔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이나 소득 기준 빈곤선(poverty line)²을 활용하여 산출한 절대 빈곤율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HDI나 MPI가 기존 지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국가의 상대적인 빈곤 정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기능과 역량 관점에서 국내 계층별 빈곤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의 구체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소득 기반 빈곤 지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HDI는 2023년 기준, 약 0.925인데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인력 개발 수준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값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역량의 지속적 상실로 인해 빈곤 상태에 있는 계층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3. 구약성경 기준과의 유사성

이제 센이 제시한 빈곤 기준과 성경이 제시한 빈곤 기준의 유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성경에는 빈곤을 명확하게 정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빈곤층으로 언급된 고아, 과부, 그리고 거류민을 통해 빈곤의 기준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이들 계층은 소득 수준이 낮고 당대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빈곤의 기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빈곤 기준을 통해 당대 경제적 취약층이 직면한 어려움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고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성경으로부터 추론한 빈곤의 기준이 센의 기준과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성경의 대표적 빈곤층이 센이 강조한 기본 기능들(functionings)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고대 근동지방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기본 기능 중 교육 수혜나 정치 참여는 당대 일부 사람들만이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건강 상태를 두고 성경의 대표적 빈곤층이 센의 빈곤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고대 이스라엘의 식단은 곡물, 콩류, 제한된 육류와 같은 농산물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러한 식단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영양소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 보통 성인이 1년 간 소비하는 모든 필수 자원의 총비용을 산출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국제 빈곤선 기준은 2024년 현재, 'USD 2.15/일'이다. (출처: World Bank)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고아, 과부, 거류민의 경우 식량 부족은 물론 충분한 영양소 공급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Borowski, 2003). 이는 영양 결핍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주택은 작고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취약계층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깨끗한 물과 적절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했을 것이다(Borowski, 2003). 이러한 생활 환경은 감염병과 수인성 질병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정결규례가 위생 관행에 대한 지침 역할을 했겠지만, 자원과 거주 상황에 따라 실제 상황은 달랐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아, 과부, 거류민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는 건강상 위험을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고아, 과부, 거류민은 다른 공동체 일원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비록 토라에서 이들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을 강조하지만, 이들이 건강 수준을 좋은 상태로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센의 빈곤에 대한 관점에서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자유를 가지고 고아, 과부, 거류민의 빈곤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유는 인생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다. 성경에서의 고아, 과부, 거류민은 경제적 자립 여건이 부족해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도 거의 불가능했다. 토라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지원책은 이들에게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지만 당시 그러한 지원책이 그들에게 삶의 여러 측면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사회 내에서 소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생존할 권리와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인정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적이고 두루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자유는 당시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구조 속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센은 ‘소득핸디캡’과 ‘변환핸디캡’이라는 분석 방식을 사용하여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소득이 더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Sen, 2010).

개발도상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주로 소득의 측면에서 빈곤층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돈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의 필요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크다. ‘소득핸디캡’이라 불릴 수 있는 소득능력의 손상은 ‘변환핸디캡’-바로 장애 때문에 소득과 자원을 좋은 생활로 변환하는데 겪는 곤란-의 영향에 의해 강화되고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정의의 아이디어 (The Idea of Justice)』, p. 291)

이러한 센의 분석은 성경의 경제적 약자층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조규봉, 2020). 고대 이스라엘은 성인 남성에게 소득 창출 능력이 집중된 사회였는데 고아와 과부는 ‘소득핸디캡’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이 많은 계층이라 일부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환하기가 쉽지 않아 ‘변환핸디캡’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류민 역시 생산 기반이 없어 ‘소득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 공동체에 기반이 약해 사회적 활동이 쉽지 않아 ‘변환핸디캡’을 가진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즉 앞서 인용한 예시에서의 장애인과 토라에서 언급하는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센의 관점에서 빈곤의 특징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경제적 취약층으로 대표되는 고아, 과부, 거류민이 센의 빈곤 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명백히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는 단편적인 소득 기준보다 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기본 기능들이 현저히 낮아 역량을 상실한 계층을 공동체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센의 기준과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기저에 있는 사회·경제적 원리는 현대 사회의 빈곤 기준을 설정하는데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IV.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

지금까지 성경에서 대표적인 빈곤층으로 공동체의 지원 대상이 되었던 고아, 과부, 거류민이 당대에 어떤 사회 경제적 의미를 지닌 계층인지 살펴본 후 이를 통해 성경에서 보여주는 빈곤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어서 현대 경제학계에서 빈곤의 기준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센의 관점을 살펴보고 그 관점을 고아, 과부, 거류민에 적용해 봄으로써 성경의 빈곤 기준과 센의 기준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제 남은 질문은 성경과 센의 관점을 통해 수렴된 빈곤의 기준을 토대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대표적인 빈곤층을 먼저 선별해 보고, 그 빈곤층이 성경과 센이 제시한 기준, 즉 사회 구조적인 취약성과 함께 역량의 지속적 상실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한국 사회의 빈곤층 분석

우선 한국 사회에서 소득 기준으로 볼 때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계층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³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인구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노인	시장소득	58.7	58.4	59.9	59.8	58.8	57.9
	가처분소득	43.6	42.3	42.0	41.4	39.0	37.7
장애인	시장소득	49.7	51.8	54.6	56.0	54.8	56.0
	가처분소득	40.6	40.3	41.5	42.0	39.5	39.4
여성 가구주 가구	시장소득	43.6	43.3	43.4	44.0	42.1	39.9
	가처분소득	37.9	37.1	36.7	35.9	32.6	31.3
한부모 가구	시장소득	48.2	48.6	49.1	44.9	40.5	43.8
	가처분소득	42.3	38.7	38.6	30.1	22.4	26.1
전체	시장소득	20.7	20.8	21.0	21.4	21.5	21.1
	가처분소득	17.6	17.3	16.7	16.3	15.3	15.1

자료: 2023년 빈곤통계연보 (원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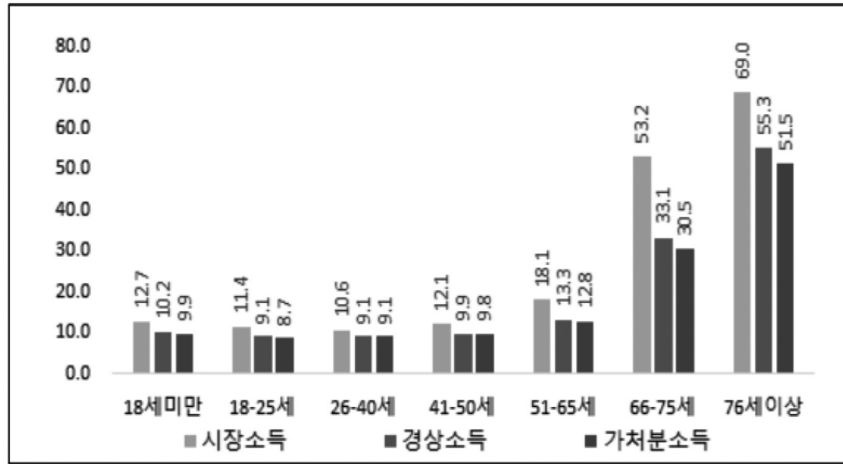
<표 2>를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최근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인구 유형은 노인 계층임을 알 수 있다. 노인 계층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계층이 바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노인 계층,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장애인 계층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이를 통해 소득 기준으로 볼 때, 노인과 장애인 계층의 빈곤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노숙인과 같이 소득 통계가 명확하지 않아 <표 2>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빈곤층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1년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거리노숙인은 1,201명으로 2016년 1,522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2021년 기준 시설노숙인은 7,755명(2016년 10,847명), 쪽방주민은 5,448명(2016년 6,192명)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이들의 74.1%가 미취업상태라고 응답하

3) <표 2>의 빈곤율(중위 50% 기준)은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빈곤선 미만 소득 계층 개인 또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이다.

<그림 1> 연령 범주별 상대적 빈곤율(2021년, 중위 50% 기준)

(단위: %)



자료: 2023년 빈곤통계연보 (원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였으며, 거리노숙인의 42.6%는 몸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노숙인 계층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본고에서는 통계 수집, 분석의 한계 등으로 인해 ‘빈곤통계연보’상 인구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의 인구 유형별 분석을 통해 노인 계층의 빈곤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2021년 기준, 연령 범주별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을 나타내는데, 어떤 소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76세 이상의 가장 높은 연령층의 빈곤율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직전 연령층에 비해 66~75세 연령층에서 빈곤율이 급상승하며, 76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도 51.5%의 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 계층 내에서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빈곤층의 비율이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고령층 가구 유형별 빈곤율(2020년, 중위 50%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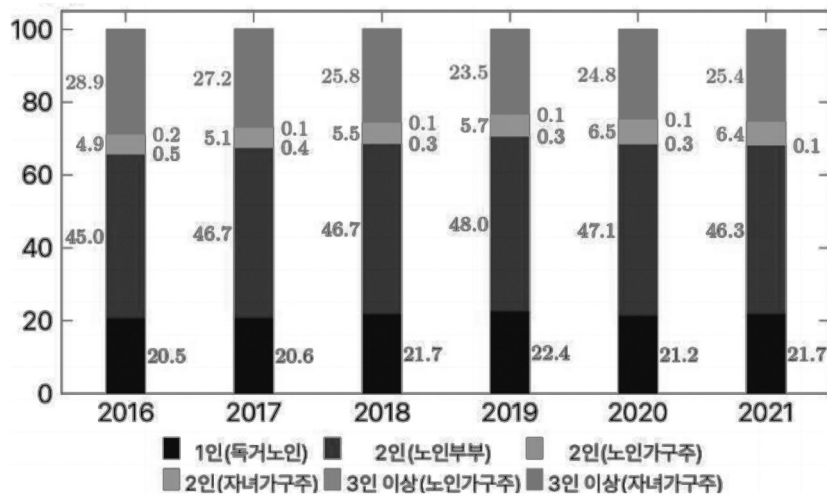
가구원 수	가구 유형	가처분소득	소비
1인	독거노인	72.1	54.7
2인	노인부부	38.2	23.2
	노인가구주	74.9	59.3
3인 이상	자녀가구주	30.7	22.5
	노인가구주	66.8	36.5
	자녀가구주	13.8	9.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승희(2023)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빈곤율이 높은 노인 계층에서 연령 외에 어떤 요인이 빈곤의 정도를 악화시키는지 살펴 보자. <표 3>은 2020년 기준 고령층의 가구 유형별 소득·소비 기준 빈곤율을 보여준다. 소득 기준과 소비 기준 빈곤율 모두 노인이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가구 유형(독거노인, 노인가구주)에 속한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다. <표 3>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자녀가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 노인 계층의 빈곤율이 상당 수준 하락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일 연령대라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고령층 가구 유형별 구성 비율(2016~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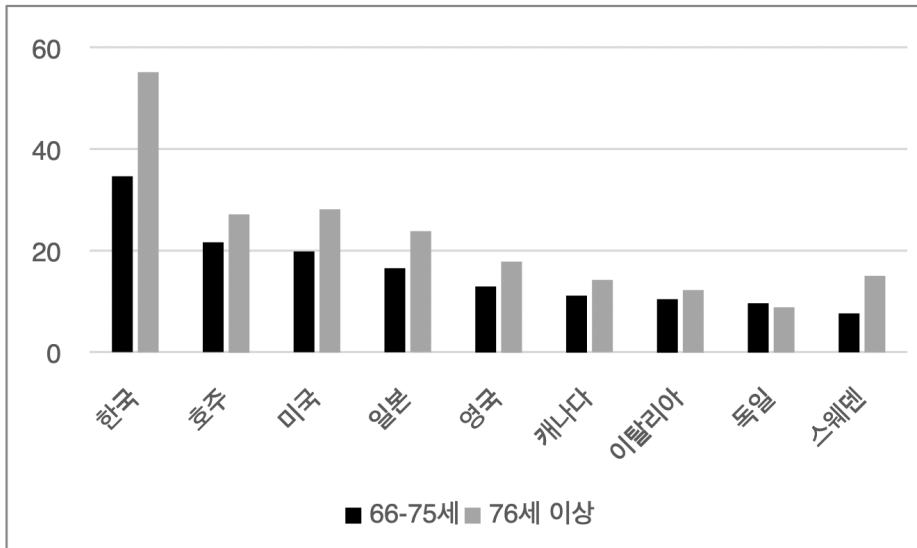


주: 막대 그래프 우측 숫자들은 노인이 홀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유형의 비율 의미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승희, 2023 재인용)

<표 3>에서 확인한 것처럼 노인이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면, 고령층 가구에서 독거노인이나 노인가구주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림 2>에서 그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고령층 가구에서 대략 21~22%가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다. 노인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은 근래 고령층 빈곤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배경과 맞닿아 있다. ‘노인빈곤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2020)’ 보고서에 따르면 근래 노인 빈곤이 증가한 원인으로 소득 하위 계층의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한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로 인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를 꼽고 있다. 특히 장기간 비정규직을 경험하면서 핵가족화, 즉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이 여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 보자. <그림 3>은 주요국의 고령층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을 보여주는데 한국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6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거의 두배 이상 높은 빈곤율을 나타낸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 계층 빈곤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승희(2023)의 연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처럼 여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노인 계층 빈곤율에다, 국내 여타 계층에 비해 소득 기준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 주요국 고령층 빈곤율(2018년, 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단위: %)



자료: 2023년 빈곤통계연보

2.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

앞선 분석을 통해 노인 계층, 그 중에서도 연령층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노인 홀로 지는 가구일수록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 기준 빈곤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이 성경에서 고아, 과부, 거류민과 같은 사회 취약층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성경이나 센의 기준에서 보면 낮은 소득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역량의 상실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므로 소득만을 가지고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빈곤 기준에 대해 성경과 센의 관점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센이 강조한 핵

심 기능들을 중심으로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핵심 기능으로서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계층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자. 사실 선진국일수록 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낮은 소득 수준은 심리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김태환, 2024). 따라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노인 계층의 경우 다른 기능이 유사하다면 상대적으로 건강 수준이 좋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게다가 노인 계층, 특히 76세 이상의 고령층은 여타 사회 계층과 비교하면 소득 수준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노쇠화로 인해 신체적 건강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노인 계층의 경우 신체적 건강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득 또한 빈곤선 이하에 처할 확률이 높아 기능으로서의 건강 상태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상당히 좋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 노인 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 구조(vicious cycle)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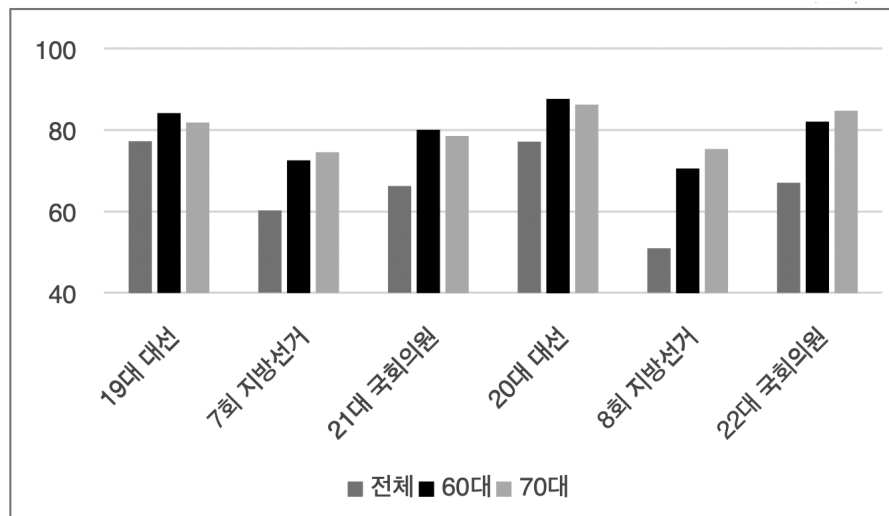
이어서 노인 계층의 교육 수혜 기능을 살펴보자. 근래 평생 교육 제공이 확대되면서 연령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교육 수혜 기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대학이 주도하는 노인 대학 평생 교육은 노인 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연계 방안으로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지닌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정하·전주성, 2024). 이러한 고연령층 대상 교육 기회의 확대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교육 내용 측면에서의 변화인데, 바로 해당 교육에서 정보화 교육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 필수적인 기능(functioning)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노인 계층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은 일반국민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55.3%에 불과하여 여타 취약층(장애인 75.6, 농어민 71.0, 북한이탈주민 85.0 등)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보화 교육이 증가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고연령층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보화 교육을 늘린다고 해서 고연령층이 현재의 디지털 환경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76세 이상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해당 연령대 빈곤층은 디지털 기기 접근조차 쉽지 않아 디지털 환경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⁴.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의 교육 수혜 기능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화 교육의

4) 자료와 연구 부족으로 노인 계층의 디지털 문해력을 정보화 교육의 연장선에서 분석하긴 했지만, 최근 사회의 디지털화 경향을 고려하면 디지털 문해력을 별도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양적 증가만으로 노인 계층이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고 관련 역량을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 계층의 정치적인 참여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정치 참여라고 하면 보통 관료나 전문적 정치집단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행위를 의미한다(Perry et al., 1992). 대표적인 정치 참여 행위는 선거에서의 투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시위, 미디어를 통한 의견 개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고연령층이 시위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본인의 정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치 참여 행위는 투표임을 고려할 때 노인 계층의 투표율 분석을 통해 정치 참여 기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60대, 70대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투표율을 보인다. 적어도 투표율을 매개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의 정치 참여 기능을 판단해 본다면 여타 사회 계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투표율이 실제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정부의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꼼꼼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노인 계층의 투표 등을 통한 정치 참여가 사회복지 예산 증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유시영, 2010), 최근 사례들을 보완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의 정치 참여 기능은 역량의 상실보다는 자유로운 정치 행위를 통해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최근 전국단위 선거 고령층 투표율 (단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 소득 기준 빈곤율이 가장 높은 노인 계층에 대해 셴이 제시한 핵심 기능들을 토대로 역량의 지속적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건강 상태나 디지털 문해력 등 일부 교육 수혜 기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자유로운 정치 참여에서는 역량 결핍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었다. 이는 현재 노인 계층이 직면한 상대적 빈곤 상태가 구조적 악순환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현저히 낮아 역량의 지속적 상실로 이어지리라 선불리 예단하기도 어려움을 보여준다. 달리 보면 지금이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배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에서 구조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컸던 계층인 고아, 과부, 거류민에 대해 구체적인 공동체적 지원을 강조하고 명령한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노인 계층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한다. 바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함께 정부의 구체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셴의 관점에서 보자면 노인 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빈곤선 이하 노인 계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을 넘어 그들이 핵심적인 기능들을 회복하여 자유로이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나서 76세 이상, 빈곤선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노인 계층이 적절한 영양 섭취와 청결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어느 정도 돕고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고 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무료 안검진과 개안수술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 계층이 디지털화에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고령 빈곤층에는 적절한 사양의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평생교육기관이 노인 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 방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 계층 스스로가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립의 기반을 공공히 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겠다.

V. 결론

지금까지 성경에서 대표적 빈곤층으로 언급된 고아, 과부, 거류민의 의미를 통해 성경이 제시하는 빈곤의 기준을 추론해 보고 그 기준이 센의 새로운 빈곤관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성경과 센의 관점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을 넘어 역량의 상실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주목함으로써 빈곤이 단순히 소득이 낮은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계층을 분석해 본 결과 노인 계층은 여타 계층보다 단순히 소득 수준만 낮은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와 같은 핵심 기능이 저하되어 역량의 상실 상태로 이어질 우려가 일부 존재하였다. 하지만 평생 교육이나 정치 참여 여건 등 다른 핵심 기능의 수준은 좋은 편이어서 당장에 지속적인 역량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위기에 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그만큼 현시점에서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노인 계층의 빈곤 상황이 개선되느냐 더 악화되느냐의 갈림길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노인 계층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 장애인, 센의 예시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빈곤에 처하기 쉬운 구조적 어려움을 가진 대표적 계층이다. 이들은 건강, 교육 수혜, 정치적 참여 등 센이 제시한 핵심적 기능이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노숙인도 마찬가지다. 거리 노숙인 등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의 통계 조사가 어렵고 체계적인 지원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 마련이 녹록치 않다. 앞으로 이들 계층에 대해서도 빈곤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다루지 않은 방식으로 빈곤의 문제를 분석해 보려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성경적 빈곤 기준을 추론하면서 당대의 소득 상황을 포함하는 경제 사료를 찾지 못해 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지 못했다. 아울러 노인 계층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센이 제시한 건강 상태, 교육 수혜, 정치 참여 등과 같은 핵심 기능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핵심 기능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담지 못했다. 디지털 문해력과 같이 새로운 기능을 일부 분석에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교육 수혜의 일부분으로 다루어 현 시점에서의 중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 외에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도 빈곤 문제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족함을 보완하는 일은 다음 연구자를 위한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본 고를 통해 성경적 빈곤관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노인 계층을 포함하여 우리 시대의 고아, 과부, 거류민은 누구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 또한 성경의 내용에서 영감을 얻어 한국 사회에서 빈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은희 (2015).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을 위한 신명기의 유산법. *Canon & Culture*, 9(2), 157-184.
- 김태환 (2023).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실태와 대응방향. 월간 복지동향, (292), 5-11.
- 김태환 (2024). 노인 빈곤과 건강의 경로 메커니즘 분석: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의 조절된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9(3), 325-357.
- 박성욱·장민 (2021). 코로나19가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에 미친 영향. **KIF 정책보고서**, (2021.1), 1-63.
- 신정하·전주성 (2024).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노인교육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 43(1), 261-280.
- 유시영 (2010).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이규원 역 (2019). 정의의 아이디어. *Sen, A. (2010). The Idea of Justice*. 서울: 지식의 날개.
- 이사야 (2009).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8), 259-288.
- 이승희 (2023). **노인빈곤에 관한 연구: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정중호 (2004).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3(1), 511-525.
- 조규봉 (2020). 토라의 경제관과 경제학적 함의. **신앙과 학문**, 25(3), 121-144.
- Alkire, S. (2002). *Valuing freedoms: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poverty re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anerjee, A. V. & Duflo, E. (2011). *Poor economics: A radical rethinking of the way to fight global poverty*. New York: Public Affairs.
- Borowski, O. (2003). *Daily life in biblical times* (No. 5).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
- Deaton, A. (2013).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erry, G., Moyer, G. & Day, N.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n, A. (1976).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219-231.

Stiglitz, J. E., Sen, A. & Fitoussi, J. P. (2010). *Mis-measuring our lives: Why GDP doesn't add up*. New York: The New Press.

Vizard, P. (2006). *Poverty and human rights: Sen's 'capability perspective' explored*. Oxford: OUP Oxford.

이 시대 고아, 과부, 거류민은? : 성경과 센(Sen)의 관점을 중심으로

**Who are the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of Our Time? :
A Focus on the Perspectives of the Bible and Amartya Sen**

조규봉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였다. 본 고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 취약계층인 고아, 과부, 거류민의 당대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경에서 제시하는 빈곤의 기준을 추론해 보았다. 그 결과 성경에서는 빈곤의 기준으로 낮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토지(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의 유무, 즉 토지의 소유권을 갖지 못해 빈곤에 처하기도 쉽고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아울러 새로운 빈곤 개념을 제안한 센(Sen)의 접근방식을 핵심적인 기능들(functionings)과 역량(capabilities)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성경에서 추론한 빈곤 개념과 센이 제안한 빈곤 개념, 즉 역량의 지속적 상실이라는 관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개념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빈곤 개념을 토대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은 누구인지 분석해 보니 노인 계층, 특히 연령대가 더 높고 홀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는 고령층이 이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노인 계층 전체가 당장에 지속적인 역량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위기에 처했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개선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 방향 또한 이들의 건강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디지털화된 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주제어: 빈곤, 기능(functionings), 역량(capabilities)